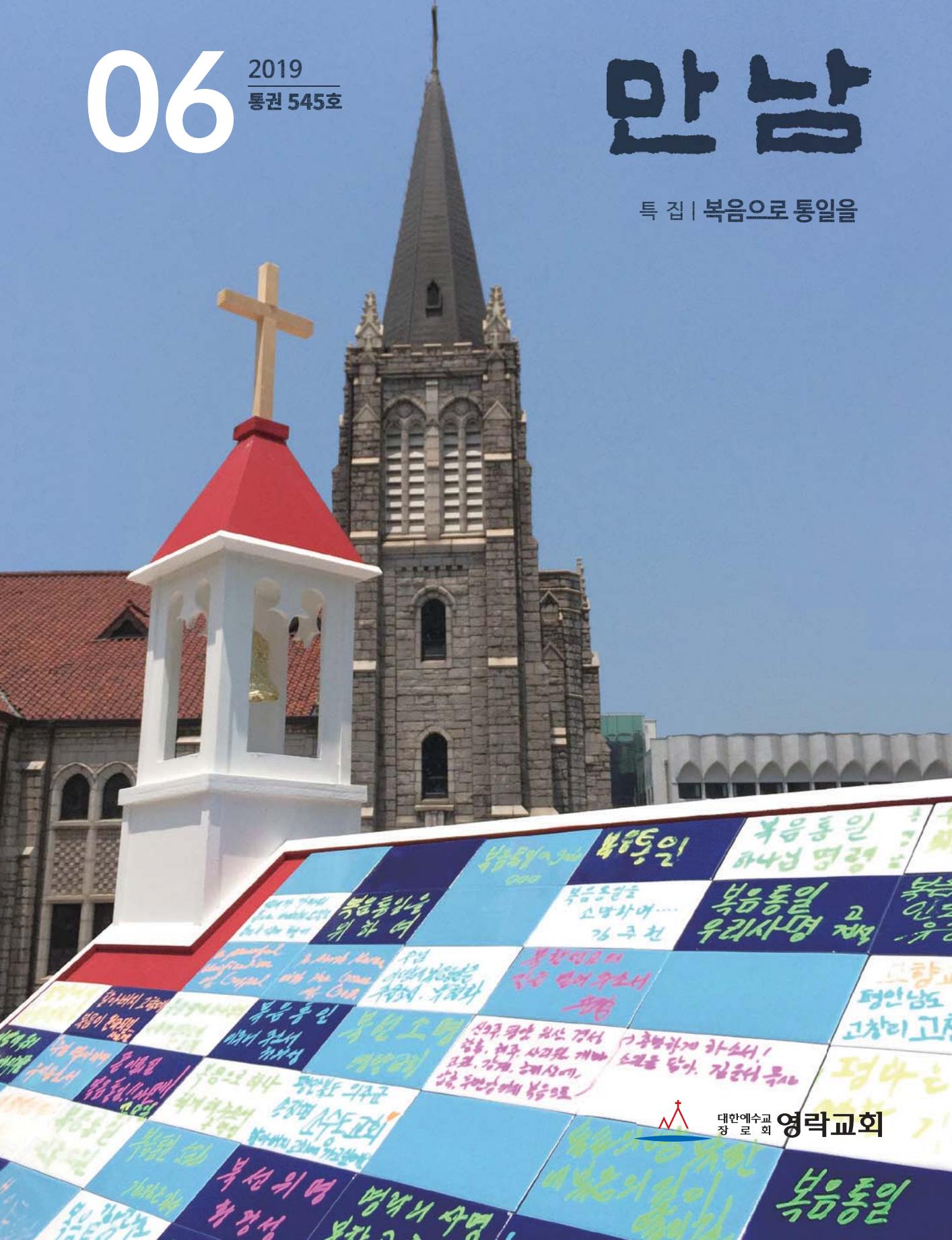


06

2019
통권 545호

만남

특집 | 복음으로 통일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 지금



전 세대가 함께 드린 가족주일 예배

5월 12일 가족주일을 맞아 교회학교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으로써 온 가정이 예수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영적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 3대가 함께 드리는 대표기도, 성경봉독, 봉헌송 등의 순서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진은 4부예배 봉헌송을 올리는 구현우 어린이 가족.

(관련기사 48면)

사진 원종석 기자

표지설명



복음통일의 비전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시대적 사명이자 기도운동이다. 많은 성도들은 남북 간의 분열과 갈등을 복음으로 통일함으로써 평화로의 전환을 간구하고 있다.

사진 박홍기 기자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만남

CONTENTS

이달의 말씀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 | 김운성 02

성령강림절 특별기고

영성은 하나님 체험, 사랑의 체험입니다 | 권혁일 04

특집 복음으로 통일을

복음통일의 비전 | 김성준 06

북한 영혼을 향한 소명자의 역할 | 지성호 08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 유승우 10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무리에서 제자 되기 | 윤종순 13

기도대각성 운동, 우리들의 한 줄 간증 16

다음세대

20대 나의 삶, 기도로 주님과 함께! | 우대권 20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님을 | 박다솔 22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화보 24

아들을 군대에 보내며 | 박성호 26

땅끝까지 이르러

주는 나의 친구 | 김준희 28

영락의 울타리

감사와 기다림을 배웁니다 | 이재향 30

야곱의 우물가

인연 | 유승현 32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 류화정 34

봉사와 섬김

영락교회 젊은이 재인식을 위한 제언 | 김성이 36

당뇨병, 왜 위험하며 어떻게 치료하는가 | 박도준 39

문화광장

십자가 앞의 변명 그리고 변화 | 조한아 42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 이영철 44

빌립,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한 사람 | 박정관 46

6월의 영락문화공간 47

교회소식

가족주일 전 세대 예배 외 48

새가족 환영·유아세례 54

편집장 레터 58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6월 목회력 60

2019년 6월호 통권 545호

발행 2019. 6.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조성일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

김운성 위임목사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짹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에스겔 37장 19절)

6월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작년과 같은, 혹은 작년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6월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호는 혼란스럽고, 여전히 남북관계는 오리무중이고,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여전히 북한은 불평등과 억압으로 굶주리는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정권 아래 있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스러운 상황을 기도를 통해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과 세계 교회가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편협하고 왜곡될 때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우리의 기도를 올곧게 펴 가시면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조차 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영락교회처럼 북한선교를 위해 열심인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로 구성된 교회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선교는 영락교회의 당연한 생태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영락교회가 북한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선교 대상이 아닌 나라도 민족도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은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민족도 아닌, 같은 민족인 이유로서도 북한선교보다 애국하는 일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일 년 중 애국이란 주제를 6월만큼 많이 생각하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국은 이 땅에 나라와 백성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존재할 사명입니다. 이것은 총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애국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다양합니다. 각론에 있어서의 애국은 매우 편차가 큽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애국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가나안을 얻게 함으로써 나라를 건국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애국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생존의 토양을 만들 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단 선지자의 애국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거나, 준엄하게 꾸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국은 무너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애국은 비록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가 되었지만, 나라의 토대가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이란 시간 동안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국의 결과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애국의 결과로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애국했음에도 나라가 쇠약해지고, 멸망하는 것을 눈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의 애국은 쉽고 행복했고, 어떤 이의 애국은 어렵고 슬펐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은 우리나라 선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애국, 구한말과 일제 당시의 민족 선구자들의 애국,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애국도 참 눈물겹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애국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우리 선배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애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애국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모두 애국해야 합니다.

앞에 적어드린 성경 말씀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로 나뉘어 있다가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위에서,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6월에는 지금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통일 조국의 복음화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 달 동안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축원합니다. **만남**

영성은 하나님 체험, 사랑의 체험입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곧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오늘날 한국에서 ‘영성(靈性)’이라는 말도 상황이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영성을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령 영(靈)’과 ‘성품 성(性)’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영성은 지성(知性)이나 감성(感性)과 더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기능(faculty)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사상’이나 ‘정신’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의 영성’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실제로는 그 내용은 마르틴 루터의 사상, 신념 등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성학의 분야에서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단어는 이현령비현령 같은 용어가 아니라 특정한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학자들마다 ‘영성’을 정의하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lived experience of rea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실재(實在)에 대한 생생한 체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권혁일 목사
강동·송파교구
영성,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이란 독일어 ‘Erlebnis[에얼리프니스]’를 번역한 말로, 다이빙 선수가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것처럼, 짧지만 그 체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하고 생생한 체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리얼리티(reality)’, 곧 ‘실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객관적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산들바람이 불어와 자신의 뺨에 부딪히는 것을 느낀다면, 이때 그가 인식(경험)하는 대상은 산들바람입니다. 또는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때 인식의 대상은 갓난아기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를 변화시키는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을 일으키는 대상은 일반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궁극적인 실재(the ultimate reality)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체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현존(presence) 속으로 풍덩 빠지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 생생한 체험이 영성학에서 말하는 기독교 영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영성과 다른 종교 영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특수한 용어인데, 오늘날에는 일반명사가 되어서 다른 종교에서의 비일상적 체험을 뜻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영성’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spirituality[스피리チュ얼리티]’는 어원을 추적해보면 라틴어 ‘spiritualitas[스피리투알리타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영(pneuma)’ 또는 ‘영적(pneumatikos)’이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영성은 ‘영(spirit)’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이때 ‘영’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Holy Spirit)을 지칭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엡 1:17 참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요 14:16~17). 그래서 영성은 성령을 빼면 이른바 ‘단팥 없는 짠빵’이 되고 맙니다.

또한 영성에서의 ‘영’은 인간의 ‘영’과도 관련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16)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

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지요.

요약하면, 영성, 곧 하나님 체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인식은 나 자신의 외부에 있는 객관적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며, 또한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보고 느낄 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신비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나님 체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5:10~12).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수평적으로 동료 인간들과 서로 사랑하면, 수직적으로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긴 요한 사도도 그의 편지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요일 3:24).

이런 점에서 영성 생활(spiritual life)이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삶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정수(精髓)입니다. **만날**

복음통일의 비전

- 2019 복음통일학교 과정을 마치고

70여 년 전 부모님과 함께 북녘 땅을 떠나왔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는 12년간 연변과 기대에서 전문인 선교를 감당했다.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의 복음통일학교 심화과정에 참여해 남다른 감회를 가졌다. 복음통일학교를 통해 북한을 위한 기도제목이 더욱 구체화되고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첫 주 개강 예배 때 김운성 목사께서 “지금 우리 현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적 이유로 서로 갈라져 갈등과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구체적인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성준 은퇴장로
성남·분당교구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어진 복음통일학교를 통해 다가올 통일시대의 기도용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셨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께서 해방 후 월남해서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민족복음화를 위해 애쓰셨다. 민족복음화는 단순히 국가체제의 단일화가 아닌,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정신혁명, 도덕적 강인과 반공의식 강화를 통해 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가는 것이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샤먼니즘과 특정인물의 신격화 우상화를 경계했다. 북에서 아직도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완고한 공산체제를 3대째 유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음통일학교 강사들은 북한 땅의 구원이 곧 우리나라가 활력을 되찾는 길임을 역설했고, 60여 명의 교육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훌륭한 군사로 분연히 일어서야 함에 공감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80% 이상은 당시 평양을 비롯한 북녘 땅에 세워졌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한경직, 이윤영 등 영적 지도자들의 섬김이 있었음을 돌아켜 볼 수 있었다.



복음통일학교는 북한관련 전문가 특강 이외에도 자유인과의 대화, 송학기도처 기도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통일의 비전을 고취시켜주고 있다. (사진제공: 북한선교부)

제헌 국회 개원 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운영 목사의 개회기도가 있었다. 이승만 임시의장의 기도가 ‘민생의 복락과 남북통일, 그리고 복음전파에 의한 평화’였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됐다.

교육과정 중 북한 출신 강사들을 통해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중언을 실감나게 들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었다. 이 중 주목할 일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청년층이 소위 ‘장마당 세대’로 기초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과 향후 북한 소비경제사회를 주도할 많은 젊은이들이 ‘타치식 순전화기(스마트폰)’로 외부정보를 접하는 등 북한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후반부에는 자유를 찾아 힘들게 내려온 자유인들에 대한 포용과 융합을 도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우리의 차세대가 자유인들과 함께 복음통일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었다.

이번 심화과정의 특징은 유익한 강연을 듣고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조별로 함께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실천방안과 각오를 다렸다는 점이다. 현장감 있고 절실히 가득한 실질적인 과정이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 2:2)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한반도 통일을 믿고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두 달간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북한 영혼들을 위한 나의 사명’을 복음통일에 대한 염원과 열정을 담아 계속 발휘하고 싶다.

복음통일 사역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계신 한족 및 조선족 분들과 함께 북한을 위한 기도와 사역을 지원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 교민들은 북한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복음통일학교에 함께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여기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각자의 소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북한선교부와 교육 진행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만남**

북한 영혼을 향한 소명자의 역할

지성호 | NAUH 대표



2018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2006년, 하나님을 수료하던 날 선물 받은 가스레인지와 밥솥에 붙어 있던 교회 이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직 목발 하나에 의지해 1만 킬로를 걸어서 탈북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차 사고로 한쪽 손과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일렁이는 두만강을 넘을 때도, 강 건너 풀숲에서 군인들이 감시의 총구를 겨누고 있을 때도, 이동 중에 매순

간 숨통이 끊어질 것만 같았을 때도,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정말 수도 없이 눈물로 불러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 팔 벌려 외칠 때마다 그분은 항상 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발표장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전, NAUH(나우)의 탈북 청년 10여 명은 백악관에 보이는 잔디밭에서 북한 꽃제비(거리아동) 재현극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 보이는 백악관을 바라보며 “저 안에 있는 대통령이 우릴 보고 북한 인권에 관심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저를 “희망의 상징”이라 지칭하며 북한에서 6년간 했던 나의 탈북 기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저는 탈북자로는 처음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13살



지성호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8년 11월 타이완에서 열린 '오슬로인권포럼'에서 북한의 인권실상을 주제로 강연중인 필자

때 아사하신 할머니와 2006년 북한을 탈출하다 체포되어 고문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마취제 없이 팔과 다리뼈를 톱으로 썰고, 힘줄을 잘라내던 그 수술의 고통도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북한 땅, 수없이 많은 제2, 제3의 지성호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2층 행사장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통일이 단지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결합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처절했던 삶의 응어리를 풀어 주며 다독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저는 영락교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사회에서 사랑을 느끼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영락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십수 년 전 영락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나눔은 오늘날 엄청난 열매를 맺

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12명의 청년들은 8년 전 NAUH를 만들었고, 종잣돈 200달러로 시작한 단체가 이제는 450여 명의 북한 영혼을 구출하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미국 의회에서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NED)이 수여하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내 주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전해질 날이 속히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소명자로 부르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며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꾫꼿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이 길의 끝에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맞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끌어안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만남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 2019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2019 북한선교대회는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를 주제로 6월 19일(수)부터 23일(주일)까지 5일간 열린다.

올해 주제는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참 자유와 평화의 복음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5일, 12일 수요 1, 2부 예배 때 북한동포사랑기도회로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며 15일 송악기도처 기도회를 갖는다.

북한선교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통일에 쓰임받기 위해 복음의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복음인가, 복음을 위한 생존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인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통일을 간구하고 부르짖어 외치게 하셨다. “이 땅의 복음통일을 이루어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하실 일임을 고백하게 하셨다.

북한선교주일(23일)에 앞서 영락포럼, 특별금요기도회가 열리며, 성도들이 북한의 오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 행사도 열린다. 베다니광장에서 열리는 ‘장마당 체험전’은 최근 북한 사회의 두드러지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현장인 장마당을 재현하고 이를 복음의 관점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장마당이란 배급체제가 허물어진 북한에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 경제의 한 모습이다. 장마당 체험전에서는 북한 화폐 대신 달란트를 통해 북한선교



유승우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북한선교부 차장



1



2



1. 통일부 하나원을 방문한 김운성 목사와 북한선교부 관계자들
2. 작년 북한선교대회 기간 중 열린 북한음식 체험전
3. 복음통일체험전에 참여한 주일학교 어린이

부에서 준비한 음식과 물품을 구입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달란트는 복음통일 컬러링, 그림 그리기, 사행시, 기도문 글짓기 공모 등을 통해 교육부 다음세대들에게 미리 제공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교육부 다음세대들의 공모 작품을 관람 후 광장에 설치될 ‘기도의 벽’에 손도장을 찍으며 기도한다. 둘째, 북한 떡인 ‘속도전’을 맛보고 복음통일을 위한 한 줄 메시지를 ‘기도의 벽’에 적는다. 셋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북한 재건 교회 모형에 ‘기도 타일’을 붙인다. 한편, ‘기도의 벽’

에서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

2019 북한선교대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교인들의 가슴에 심겨지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북한선교대회는 통일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진행형 대회이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북한선교 대회가 되게 해 주실 것에 감사드린다.

북한선교대회는

북한선교대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민족복음화라는 사명을 놓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데서 출발한다. 한 목사님은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무너진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철신 원로목사님은 ‘복음통일’과 ‘자유인’이라는 용어로 북한선교 정신을 강화했고, 김운성 목사님은 북한에 남겨진 그루터기 성도들과 복음통일 이후 재건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뿐 아니라 영락교회가 북한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하고 훈련할 것을 강조하셨다.

우리 교회는 1998년 북한선교센터가 시작되면서 북한선교주일을 지켜왔다. 1997년 북한선교센터준비위원회가 조직된 후 1998년에 출범한 북한선교센터는 첫해부터 선교 답사를 시

작으로 자유의 사람들을 섬기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평화교회)를 최초로 창립했다. 이와 함께, 통일 사역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북한선교학교를 설립했다. 북한선교학교는 북한 전문가들의 호응과 참여로 준비했고, 교회 내의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도 깊었고 전 교인의 열정과 성원도 매우 컸다.

이듬해 귀순자성경학교(현재 자유인예배부) 개강과 접경지역의 비전트립도 시작되었다. 자유인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에 하나교회 창립과 송악기도처 십자가탑 설치와 점등식도 했고, 이후 수많은 교육과 행사를 통해서 오늘 날까지 선교비전이 쌓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이었다. 초기 사역부터 집중해 기도에 힘쓴 헌신은 오늘 날 북한선교부 선교비전인 ‘복음통일’의 토대가 되었다.

2019년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 행사 및 일정

5, 12, 19일(수)	수요 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본당
9일(주일)	오후1시	영락포럼(이춘근 박사)	기념관503호
15일(토)	오전9시	송악기도처 기도회	송악기도처
21일(금)	오후4시20분	영화상영(풀란드로 간 아이들)	소강당
	오후8시	특별금요기도회(김운성 목사)	본당
23일(주일)	1-5부	북한선교주일 예배	본당·부속실
	오후5시	오후찬양예배(임철빈 목사)	본당
	종일	장마당 체험전	베다니광장

무리에서 제자 되기

- 2019년 목요집중반 국내성지순례를 마치고



윤종순 집사
노원교구

작년 어느 주일 아침, 목사님 말씀이 제 맘속으로 쑥 들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날 이후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일 거라고 생각 했던 저에게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나는 무리일까? 제자일까?’ 자문자답하며 한동안 목사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신설된 ‘제자양육훈련부’ 관련 영상과 광고를 보고 망설임 끝에 ‘목요 양육훈련집중과정반(이하 목요집중반)’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구목사님과 함께하는 소그룹 나눔을 생각 하니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첫 만남은 순조로웠고, 이후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자 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성경의 기본지식과 소양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부끄러운 만남에 창피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친걸음이라 마태복음 15장 21~28절 말씀처럼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수치를 감내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닮고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훈련과정 중 하나인 성지순례는 십자가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순

교신앙 발자취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는 이른 아침, 찬양과 기도 후 ‘Healing in Jesus(행 3:8)’ 문구가 새겨진 ‘경건 팔찌’를 주시며 성지순례를 통해 주 안에서의 힐링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목사님 말씀을 새기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 번째 순례지인 여수-순천지역,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곳곳이 채워진 드넓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보며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여수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교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적힌 구절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소 실천하다 소천하신 손 목사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기념관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 2:14~25)’이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신 훌륭한 성자였습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다 가신 목사님을 더욱 더 사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철쭉과 영산홍이 만발한 오솔길을 따라 손양원 목사님 가족묘소를 참배한 후 교회에 들러 애양원을 짓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약 14만 평의 갯벌을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들이 주먹손과 엉덩이로 간척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그야말로 펍박과 시련 속에서 몸부림치며 믿음 하나로 이루어낸 기적의 성지였습니다. 일곱 살 어린 나이에 한센병으로 부모에게 조차 버림받았던 91세 할머니는 지금도 10~20분 거리를 성지 않은 주먹손으로 유모차에 의지해 한 시간씩 교회에 오가며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에는 참았던 마음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숭고한 믿음 앞에 온갖 핑계로 간간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던 예전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할머니의 도타운 신심이 부러웠고, 그 굳건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발원한 것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울먹이는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양원의 불게 핀 철쭉은 마냥 곱고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고단한 여정에도 섬기는 손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전날 온종일 몸을 사르는 섬김도 부족했던지 밤새 영상물을 만들고 편집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숭고한 봉사에 감사하는 박수밖에 없어 그저 송구스러웠습니다.

동백꽃으로 유명한 오동도에는 철 지난 동백꽃이 어찌다 눈에 뛸 뿐 온통 초록의 바다였습니다. 오래 전 가족여행 추억을 반추하며 동백 숲을 거닐다가 바다가 보이는 해돋이 전망대에 다다랐습니다. 성찬식을 위해 120여 명이 무리지어 앉았습니다. 섬기는 손길들은 여전히 성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 어의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과 영생의 떡을 주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국내성지순례 일정 첫 날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목요집중반 전원이 모였다.



김제금산교회(왼쪽 사진). 남녀 신도들이 따로 있도록 설계했다. 애양원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비 앞에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찬양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수면을 가르며 모터보트를 즐기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외치더니 사라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청객의 추임새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흐뭇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떡을 떼어 서로의 입에 넣어 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떠올라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건넸습니다.

이어서 교구 목사님께서 일일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시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슴이 둥클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입술로만 고백했던 예수님 사랑, 혈령하게 못 박은 나의 죄악들,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은 내 어깨 위의 십자가, 뒷걸음질 쳤던 지난날들의 불순종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의 베드로 고백처럼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제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순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종순아,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하고 다시금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기만한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예!”

성찬식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주님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동도는 제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귀경 길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금산교회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섬김의 귀감이 된 예배당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도 변함없이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금산교회와 더 이상 울리지 않는 교회의 종탑을 바라보며 문득 1박 2일 동안 성지순례를 준비하며 말없이 섬겨주신 분들이야말로 섬김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며 애쓰신 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묵묵히 섬기는 일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제자의 삶을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남**

12만V 기도대각성 운동 우리들의 한 줄 간증



새벽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배OO

오래된 나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했던 친구와 절연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던 그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 이OO

인터넷도 TV도 없는 방에 홀로 남겨져서 화가 났으나 기도운동 시작 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로 변했습니다. - 김OO

항암 중에도 잘 이기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마음을 지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3시 이른 시각 늘 깨워 주시고 말씀묵상과 기도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리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 방OO

다른 이를 지적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OO

다리미가 하루 동안 켜진 상태로 있었으나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발견하고 처리하게 하심 무한 감사합니다. - 박OO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기도를 하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OO

나이가 76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아를 내세우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홍OO

고 1때부터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고, 37년간의 기도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허OO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안OO

새벽 3시에 깨워주시고 1시간 20분간 버스를 타고 달려 오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OO

헤어진 시동생을 사랑으로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OO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잠이 너무 많은데, 2번이라도 특별새벽기도회에 나오게 되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의 잠을 깨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OO

성경통독방(카톡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OO

정리하고를 당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복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OO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가정에서 저녁마다 아내와 합심 기도를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황OO

기도할수록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OO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식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OO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영적 오아시스가 되며 주일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드렸는데, 큰아들이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황OO

예수를 믿는다고 팍박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결혼 40년 만에 생일이라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순전해져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황OO

약한 체력을 핑계로 오랜 기간 중단했던 전도를 나갔다가 앵무새와 산책을 나온 42세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OO

지난날 술에 취해 하우적거리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OO

기도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나 오늘도 성전에서 신실하신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자유한 발걸음으로 성전을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배OO





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니까 앞날이나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 성OO

평생 병원을 모르고 살아온 제가 고난주간
전 금요일에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저의 질병 또한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취하여 가실 이도 여호와
인줄 알기에 오직 주님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맡깁니다. - 고OO

작년에 새로 등록한 새신자입니다. 인생을
찬송으로 비유하면 3절 중 2절을 부르고 등록
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인생의 3절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OO

골반뼈가 어긋나 병원에 가는 중에 사고로
넘어졌습니다. 약간의 상처는 있었지만 어긋난
골반뼈가 회복되었습니다. 작은 풍랑에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조OO

가정 안에서 늘 되풀이되는 갈등이 화목으로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 OOO

하나님, 너무 기뻐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심야기도에 원주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위와
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딸의 42번째 생일도 감사합니다.
- 이OO

여동생을 천국에 보내는 장례식을 통해 완벽
주의자이며 거만했던 남동생과 언니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서OO

기도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 쌀이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때때로 이웃이 국과 반찬을
주셔서 풍성한 식탁을 누렸습니다. - OOO

끈기가 없는 제가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도' 묵상 시간을 매일 지키고 있어요. - OOO

3월 14일, 큰아이의 생일 저녁식사 때 큰아이가
새벽기도와 가정예배를 왜 드리지 않냐고 물었
습니다. 그 한마디가 3월 15일부터 온 가족이
새벽기도와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장OO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나아갔을 때는 불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자녀의 대학 문제를 맡기니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김OO

금식 기도를 할 때, 기운이 빠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힘 있게 회사 업무를 하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 이OO

오늘 새벽기도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복예배 때 바로 응답 주셨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 이OO

어제 새벽기도 출발 시간에 차가 고장이 났었는데, 기도회에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과 수리 타이밍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아프지 않고 차가 고장이 난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 박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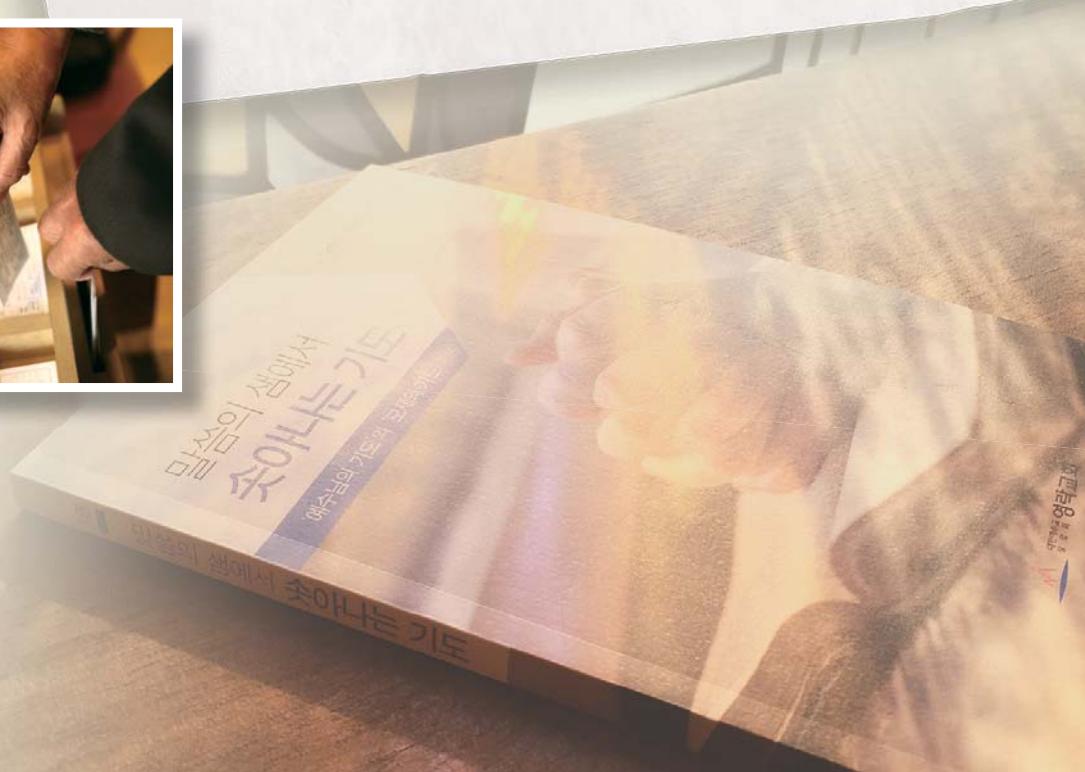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수첩에 기도 내용을 정리했으나, 주님은 어떤 간구보다 저의 심령에 대해 알고 싶어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 유OO

아들이 대학부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대학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와 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OO

먼 곳 하늘나라에서만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심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 이OO

십자가에서 목말라하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저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OO

성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전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슈퍼마켓 주인에게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고OO



20대 나의 삶, 기도로 주님과 함께!

- 대학부 기초신앙 양육과정 4.13(토) ~ 6.1(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이며, 특히 기도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고백과 참회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도, 정작 어떻게 숨을 쉬냐 물으면 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은 늘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특히,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서 신앙적인 갈급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대학생들의 신앙적인 고민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또 동시에 영락교회에서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기도대각성 운동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대학부에서는 ‘아는 기도? 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초신앙 양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올라가는 이 시간에도 뜨



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주말

4월 13일, 데이트 또는 짊음과 청춘을 즐길 만한 토요일 오후 2시에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3층은 다른 의미로 뜨거웠습니다. 노방 전도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찬양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마다 손을 들거나 눈을 감고 그 찬양에 목소리를 얹는 대학생들이 대여섯 명씩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조별로 둘러앉은 그들은 교재를 통해 기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왜 기도하는가’로 시작한 질문은 철학적인 부분을 넘어서, ‘매일 기도’와 같은 방법론적인 개념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느낌’, ‘하나님께 감사’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 ‘매일 기도’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는 과정까지 진행됩니다.

뜨거움은 계속된다

일주일 뒤,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아는 기도? 하는 기도!’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첫 시간에 실망한 학생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무색합니다. 박성율 전도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기 전 잠깐의 찬양 시간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욱 뜨거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임연정 학생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했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나눌 수 있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을 하나님으로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항상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대각성 운동에 발맞추고 있는 젊은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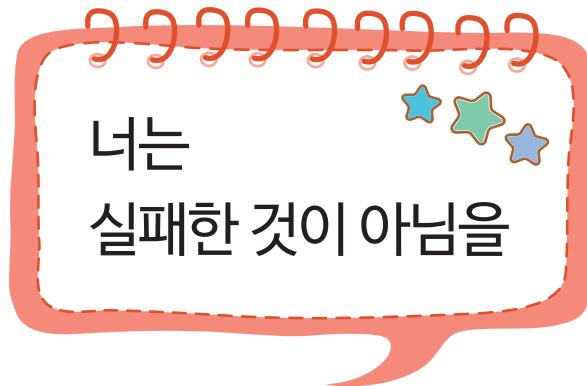
실은 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이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매일 습관처럼 하는 기도에 대해 총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마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대학생들의 열정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에 의문을 던지는 대학생들, 그 소소한 질문에 귀를 기울여 일일이 대답을 해주시는 전도사님들, 또 그런 귀한 시간을 ‘기초신앙 양육과정’이라는 이름 아래 체계적으로 구성해주신 목사님이 계시기에, 영락교회 대학부가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기도의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남**

취재 우대권 편집위원

※ 대학부 기초신앙 양육과정 ‘아는 기도? 하는 기도!’는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0주년기념관 302호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지려는 대학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다솔
베드로부 학생회 총무
한국외대1학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월칵 울음이 쏟아졌다. 새로 고침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불합격하셨습니다’라는 여덟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늘까지 나는 수시 모집에서 여섯 번, 정시 모집에서 세 번, 총 아홉 번의 불합격을 경험했다. 붙은 대학이 아무 곳도 없었다. 밤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운동복에 낡은 패딩만 걸친 채 연초의 희망을 만끽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어디든, 어디든 좋았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없는 곳으로… 걷고 또 걸으니 한강이나 왔다. 걸었다. 한 시간, 두 시간.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핸드폰이 꺼졌다.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얼어붙은 귓바퀴를 마구 굽으며 들려왔다. 너는 떨어졌다. 너는 실패한 거야. 대학이 너를 버렸어. 너는. 그래, 나는 패배자라고….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아홉 살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열아홉 살이었으니, 약 십 년을 교회에 다닌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지 않았다. 평균 삼 주에 한 번 나갔다. 석 달이 넘도록 가지 않은 적도

많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에겐 교회에 있는 시간 자체가 낭비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재수를 시작하고 난 후, 한동안 연락이 없던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다. 베드로부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베드로부’ 네 글자로 된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다짜고짜 화부터 났다. 한 시간도 아까운 재수생 입장에서,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재수생 입장에서 교회라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내가 베드로부라는 곳에 앉아 존재조차 확실하지 않은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내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을 터였다. 이미 대학에 아홉 번 떨어져 본 나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내게 대학을 주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게 나아 보였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부는 실패자들이 모인 곳 같았다. 베드로부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 싫었다.

울어도 보고, 짜증도 내 보고, 소리도 질러 보고, 머리칼도 쥐어뜯어 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재수생이었고, 싫어도 공부를 해야 했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가 갈 곳은 육십 개의 책상으로 꽉 찬 교실뿐이었다. 학원에서는 언제나 밟고 올라가라고 가르쳤다. 너희들은 패배자라고. 그러니 산을 오르듯 옆 사람을 밟고 올라가

라고. 밟고 올라가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다. 남들은 한 번에 붙는 대학, 그 문 앞에서 아홉 번이나 실패한 내가 패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다는 외로움이 컸다. 두려움이 희망을 먹고, 어둠보다 더 큰 외로움이 나를 먹었다. 외로움 깊은 곳에 잠겨 있던 나에게 반딧불처럼 베드로부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를 만나고 싶었다. 더 이상 혼자 먹는 밥은 싫었다. 날 자극해줄 경쟁 상대도 선생님도 아닌 그냥 친구가 필요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처음 베드로부의 문을 열었다. 단지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서 갔던 베드로부에서 처음 들었던 설교가 가슴 속에 남았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세상 모두가 나에게 실패했다고 하는데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니. 내가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그랬는데도 아홉 번의 실패를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 한번도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적이 없었다니. 사실, 내가 없어 외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었다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바보처럼 눈물을 흘렸다. 교회에서는 처음 헌려본 눈물이었다. 힘든 만큼 눈물도 많이 흘렀다. 나를 실패자가 아니라고 해 준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다.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베드로부에 나갔다.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웃었다. 이것을 뻔내 인생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베드로부는 점차 내 삶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왔다. 점차 기도하는 시간도 늘었다. 학원에 가는 버스 안에서, 밥 먹기 전에, 학원에 도착해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베드로부를 통해 나는 많이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남을



작년 여름 영락기도원에서 있었던 베드로부 수련회에서
(사진 앞줄 왼쪽 첫번째가 필자)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베드로부 벗님들의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서 학원 책상에 놓고 수시로 기도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나님, 11월에 있을 시험 결과를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와 위로를 받았다. 우연히 만난 베드로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 우연이 없는 내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나는 베드로부를 통해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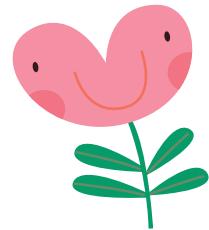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된 나는 이제 학생회로 베드로부를 섬기고 있다. 주일마다 아침 일곱 시 반에 나와야 하는 일이지만, 베드로부에 와서 변화될 30기 벗님들을 생각하면 아침마다 기분 좋게 눈이 떠진다. 아직도 밖에는 스스로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방황하고 있는 벗님들이 많다. 나는 더 많은 벗님이 베드로부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부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님을. 네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잠시 너를 그의 곁으로 부른 것뿐임을…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아름답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대로. **만날**

교회랑 우리랑 날마다 쑥쑥!

- 제25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제25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가 ‘교회랑 우리랑 날마다 쑥쑥’이라는 주제로 5월 4일(토) 5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예배, 자유 놀이, 버블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꽃들의 잔치 행사 당일의 생생한 모습을 지면에 담았다.

촬영 홍보출판부 사진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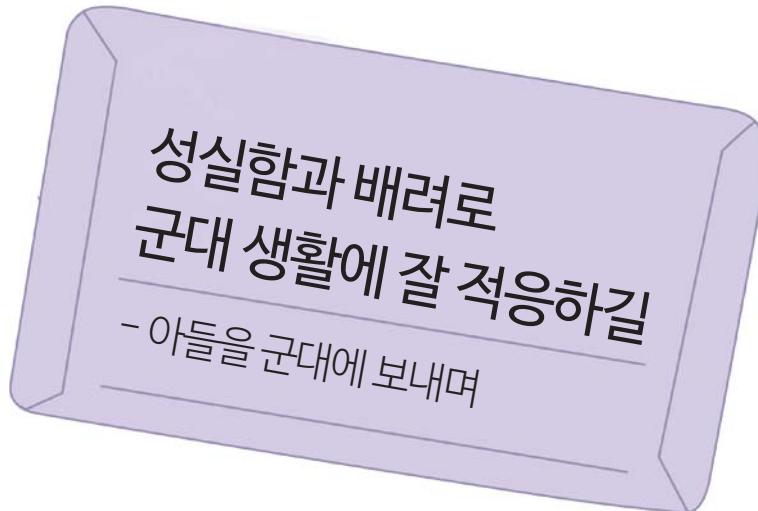
뮤지컬예배(윗사진)과 어린이들 찬양,
버블쇼(오른쪽 사진) 등이 펼쳐졌다.





버블쇼와 인형극, 자유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 위 원쪽부터 시계방향)





지난 5월에 아들 건우가 군대에 갔다.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마음으로 신병훈련소에 아들을 남겨 두고 돌아오면서 느낀 감회를 적어본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내 박지영 권사를 보내 주셨고 딸과 아들을 주시어 가정을 이루게 하심이 큰 복임을 알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감격적인 일은 단연코 소민과 건우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4명의 식구로 단란한 가정을 이룬 지 20여년이 지나고 지난달에 아들이 군대에 갔다.

예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랬듯이 나와 아들과의 관계도 비슷했다. 대화도 짧게 끝나곤 했고, 아침 저녁으로 그저 한번 보고, 눈으로 웃고, 손으로 톡톡 치면 그냥 그것으로 좋았다.

이제 청년이 되어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집을 떠나서 훈련을 받고 있는 아들에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박성호 집사
성남·분당교구

대한민국 청년은 다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렵고, “준비된 자는 없다”는 말처럼 집 떠나 처음 겪는 군대 생활이기에 두렵고 부담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아들에게 그동안 믿음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성실함과 이웃에 대한 배려로 신병훈련 잘 마치고 자대 배치 받고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해, 밝은 웃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린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아들아! 우선 고맙구나.

우리의 아들로 와 주어서 고맙다. 사물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부터 눈 맞춰주고, 내 품에서 잠자고, 껌 띄지 마냥 아빠에게 붙어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주어서 너무 행복했다. 주님께서 소민과 건우를 잘 키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곤히 잠자는 너희를 깨워서 같이 교회에 갔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교회 다녔던 시간들이 쌓여서 그런지 이제는 베드로부를 섬기며 찬양을 위해 주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교회로 향하는 젊은이가 되어 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어른 세대가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심어 주지 못하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풍요로움에 빠져서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더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들과 지역과 사회 계층 간에 관점이 다르다는 것으로 서로 반목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린, 염치없는 어른 세대이기에 미안할 뿐이다.

끝으로 건우가 군인이 되었다고 하니 생각나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지.

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장난감총을 사달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총이 사제 장총으로, 이걸 제작한 사람이 이런 총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바람에, 아빠가 마포경찰서 광역수사대에 출두해 마치 범죄자같이 진술하고 조서까지 쓰고 나왔던 일이 있는데, 이제는 건우가 진짜 총을 다루는 군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아들과 같이 매주 드렸던 기도를 드린다.

“제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주는 나의 친구

- 영락고등학교 신앙수련회를 마치고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과 한경직 목사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영락고등학교는 해마다 '신앙수련회'를 개최해 신앙 훈련에 하루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1교시에 한 시간씩 채플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를 내어드리는 시간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찬양팀과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기도 하고, 연예인 같은 특별한 손님을 섭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관악구 청룡동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합력해 학생들과 지역 교회 사역자들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까지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영락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지만 실제로 학생들 중 기독교인의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기독교 학교의 기본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중에 드리는 채플 예배와 학교 신앙 행사에 무리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앙수련회에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 신앙수련회는 지난 4월 12일(금) '주는 나의 친구' (요 15:13~15, 시 119:63)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전의 말씀 중심 집회에서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협동목사로 섭기며 다음세움선교회 대표와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광상학 목사가 재미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15분 설교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 속에 스며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집회에서는 기독교 음악 사역단체인 한국 컨티넨탈싱어즈를 초청해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학생들을 신앙으로 연결시켜주는 귀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드리는 채플 예배 속에서 학생들은 찬양의 즐거움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채플에서 짧게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아쉬운 학생들은 신앙수련회에서 그 아쉬움을 해소합니다. 전문 찬양팀의 신나는 찬양에 함께 몸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 질러 노래하기도 합니다. 컨티넨탈싱어즈 찬양팀과 함께한 찬양집회 시간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발산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코미디언 조래훈 씨가 간단한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연예 활동을 하는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신앙인으로



김준희 목사
영락고등학교 교목



학생들의 뜨거운 찬양으로 기쁨이 넘쳤던 신앙수련회

로서 우리들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영락고등학교 찬양 동아리 '헤세드'와 워쉽 동아리 '위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오전 오후에 배정된 각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위해 헤세드와 위딤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며 신앙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섬김이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는 우리 학교 주변의 지역 교회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사역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원사역은 결국 학생들의 신앙을 잘 훈련시키고 지역 교회에 연결해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고등학교 신앙수련회는 바로 그 시간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별 축복의 시간을

통해 교회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각 교회가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먹고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금 더 교회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사전에 지역 교회 사역자들과 만나 신앙수련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처음으로 영락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부임했습니다. 모든 행사, 예배, 학교의 행정들이 낯설기만 한데 이번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학원사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와 더불어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위해 이번에도 영락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좋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그 시간 가운데 단 세 번밖에 없는 특별한 시간, 영락의 신앙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감사와 기다림을 배웁니다

아주 특별한 가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구역식구 중 한 가족입니다.

이사 심방을 위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아주 작은 어른인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환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주 밝고 친절한, 소인증인 40대 여인이었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저를 맞이한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아,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의 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침대 위에는 환자가 한 분 누워 계셨습니다. 수십 년을 와상 환자로 지내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고운 모습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반가운 인사에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저는 17년간 구역을 돌보고 있는 연약한 구역장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의료사고로 인해 수십 년을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보상조차 받지 못한 힘없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외모지만 건강했습니다. 그녀가 짧은 팔과 다리로 종종거리며 온 식구를 위해 살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오빠와 어머니의 손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그녀가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하심이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까요? 싫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향 권사
성동·광진교구 44구역장

그녀에게는 장애인 오빠가 두 분 계십니다. 선천성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큰오빠와 사고로 두 발을 쓸 수 없는 작은오빠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러나 특출한 두뇌와 손의 움직임이 발달된, 어른의 품에 끙 안기는 작은 체구의 큰오빠는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습득하며 지식을 쌓고 있는 냉철한 50대 장년입니다. 장남으로 가정의 대들보 역할을 확실히 해 나가고 있는 듯싶습니다. 다정다감한 작은오빠 역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의 보조금으로 작은 임대 연립에서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도 짓밟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만이 되뇌어졌습니다. 이리 하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한 가정에 모아 놓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어머니와 두 오빠를 어찌하라고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난 것일까요. 유일한 비장애인 아버지마저 이혼이란 악습 속에서 가족과 남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 받는 이들만을 남겨 놓으셨나요.

그러나 이 모든 원망은 어리석고 연약한 구역장인 저만 품고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의 그녀는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줄 아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에는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현명한 집사였습니다. 이러한 당당함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담대합니다. 가정의 열악함을 원망하

는 대신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두 오빠를 곁에 주셔서 감사하다 말합니다.

1년 전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교우들이 돋고,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를 치르면서 오빠들의 마음을 조금씩 그리스도에게로 열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 말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구역장은 창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실을 감사로 위로하며 사는 그녀의 삶 앞에 부끄럽습니다. 보폭 넓은 제 옆을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면서 즐거워하던 그녀의 모습. 그러나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보폭이 넓었던 저를 따라오려 겪었을 고통을 알지 못해 부끄러웠습니다. 어리석은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감사와 여유와 기다림을 배웁니다. 원망을 거두고 그녀의 믿음에 동행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죠? 왜 이 가정에 모든 것을…….

끝내 되물을 수밖에 없는 믿음 약한 구역장인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남**

인연



〈십자가 그늘 아래〉 유승현 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손짓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벌써 원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터인데 저는 끊임없는 반항과 거부로 부르심에 맞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꼬이기 시작한 것은 유치원 시절부터였습니다. 유서 깊은 광화문 S교회 유치원을 다니던 성탄절에 겪은 일입니다. 교실에 진짜로 산타클로스가 등장해 커다란 보따리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꺼내 주는데, 저도 선물이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주일 학교에 나오고 주일을 잘 지킨 아이에게는 산타클로스가 엄청난 선물을 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을 거의 안 지켜서인지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의 좌절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제 교회 나가나 봐라 하는 빙향심이 태동했습니다.

다른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영락교회에 얹힌 어언 25년 전의 사연은 조금 엉뚱합니다. 저희 집안이 이복 출신이

기애 영락교회의 존재감은 불교를 믿고 있던 저희 집안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청렴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락교회에는 저의 부친과 고향 절친이신 강용수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계속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중매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부친은 매우 기뻐하며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강 장로님은 조건을 한가지 불이셨습니다. 소개를 받으려면 먼저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은 매우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과 내 아들을 못 믿냐는 생각으로 불쾌했고, 조건을 거는 것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길 듣고 나가는 척이라도 하고 소개를 받고 싶었는데, 아버님은 아예 교회 나가지도 말고 소개도 받지 말라고 선언하셔서, 친구 분과의 사이도 서먹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퇴한 강 장로님은 나중에 자손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해마다 한국 나오시면 부친과 만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연락이 갑자기 끊어졌고 그 이듬해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생각과 함께 영락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 장로님은 2017년 7월 작고) 만일 제가 영락교회를 다녔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버님은 이렇다 할 취미도 없으셨고,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만 하시고 본인을 위해 쓰신 돈은 별로 없었던 것을 되짚어 보면서 공수래공수거의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두렵지 않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 초월적 힘은 종교적인 힘이 아니면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신 후 저도 인생을 재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 제2막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공학도의 전공을 버리고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살펴보자는 생각에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 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취미도 없이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고 있던 사진을 매개체로 해 그 분들에게 취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것같이 물고기를 낚아 드리기보다는, 삶의 활력을 주는 사진 취미, 즉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4월, 학교에서 같이 사진을 공부하던 급우 중에 저를 자극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락포토'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사진 강의도 하니 한 번 와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영락교회외는 '정리하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기에 그것도 풀고 싶었고, 또한 교회에서 사진 모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를 끌어서 제안에 응했습니다. 봉사관 4층에서 강의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강사도 훌륭하고 강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참석하게 되었죠. 뒤풀이에도 참석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집사님은 못 보던 분인데, 몇 부 예배 나오세요?"하고 계속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강의만 들으러 나왔다고 말하기도 불편해서 결국 새신자 등록을 해버렸고 2017년 7월 30일 새가족 화평반을 졸업했습니다. 어쩌면 은퇴 강 장로님과 부친의 갈등도 풀어보겠다는 소망이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신자 등록을 하니 맘이 편하고 모임에서도 더욱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베이비 성도인 저에게 계속 주님의 사역을 할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의료봉사도 따라가서 사진 봉사를 하고, 북적북적 행사에서 대상도 받고, 홍보출판부에 소속돼 사진 기자 역할도 수행하면서, 「만남」에 제가 촬영한 사진이 수없이 실리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영락포토에서는 서기도 맡고, 제가 어르신 대상으로 포토샵 강의를 두 학기 동안 하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어르신 봉사의 꿈을 이룬 셈이지요. 또 어르신들과 함께 사진 그룹전도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강의를 통해서 지인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별을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미혼이긴 하지만, 지금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신다면 강 장로님과 선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짧은 시간에 봇물처럼 터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봉사의 길이 힘들고 험난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즐겁게 생각하며 이겨나가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유승현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10교구 31구역 류화정 집사입니다.

형편없고 미련하며 무의한 저에게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글로 담아내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이 또한 기도하며 조심히 써내려갑니다.

작년 4월 21일 전 교인 전도주일에 영상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영락교회 전도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후, 믿지 않던 친정 식구 13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운성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에 감동한 남편에게 성령님께서는 장인 장모님을 교회로 모시라는 급한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대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께서는 주일예배를 두 번 드리시고는 5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뒤로 친정어머니는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저희 부부와 주일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큰오빠네와 작은오빠네, 언니네 가정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도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본당 긴 의자에 앉으시면 이 긴 의자에 우리 자식들이 모두 함께 앉아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사를 추도예배로 바꾸기를 원하셨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오빠들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어머니의 권유에도 마음이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 기일인 5월 3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제사 문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기도 책자로 묵상 후 기도 중에 “하나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무너뜨리고 추도예배로 바꾸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큰오빠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 5월 3일 친정아버지 첫 기일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입니다. 첫 추도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은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이 됐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삶의 끝이 아니며, 부활 생명 얻어 영원한 천국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



류화정 집사
종로·성북교구



작년 5월 친정아버지 소천 직후 처음 맞이한 가족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께 가고 싶은 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잘 전해졌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빠들 가정과 언니 가정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며 주일성수 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3월에 군 입대한 큰조카가 군부대 안의 교회에서 주일예배도 드리고 진중세례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프리카 B선교지의 기도편지를 식탁 유리에 끼워놓고 식사할 때마다 자주 읽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대화 중 “우리도 이곳에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가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12만 볼트를 충전하기 위해 금요기도회 가서 전날 대화 나누었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본당에서 나오다가 아프리카 B선교지에 계셔야 할 선교사님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2~3)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품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고 누리는 자로 살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1볼트씩 충전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만날**

2030세대 선교·신앙활동 관심 높다

-영락교회 젊은이 재인식을 위한 제언

믿음 뜨겁지만 참견·관심 싫어하는 젊은 세대

난생 처음 아프리카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떠나기 전에는 ‘내가 과연 몇 명이나 선교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치유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아프리카 케냐 팀의 최고령자라서 가장 심한 환자의 치유기도를 맡으면 어떻게 하나?’ 등 별별 생각을 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다 기우였다. 하루에 최고 33명을 교회로 인도했고, 치유기도로 나았다는 반응을 듣기도 했다. 모두 주님의 인도 따라 하면 되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선교체험을 할 수 있었다.

여러 체험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경험도 하게 되었다. 케냐 선교 팀은 우리 부부를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가 72세로 나이가 제일 많았고 대부분 20~30대였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한 세대 차이 나는 사람들과 두 달간의 선교체험을 하면서 젊은 세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 부부와 많은 점에서 달랐다. 그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다. 나이 많은 세대를 존경은 하나 특별히 배려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신앙심은 뜨거웠으나 우리들과는 다른 복음찬송만을 불렀다. 이러한 경험은 세대차를 말로만 듣고 있었던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김성이 은퇴장로
성동·광진교구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세대차를 규명해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 모형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가 잘되면 남남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통합과 남북통일과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대는 신앙-60대는 교육·의료 서비스 요구 커

영락교회는 지난 2015년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세우는 계획’을 위해 19세 이상 전 교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해(응답자 1,307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중에서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다음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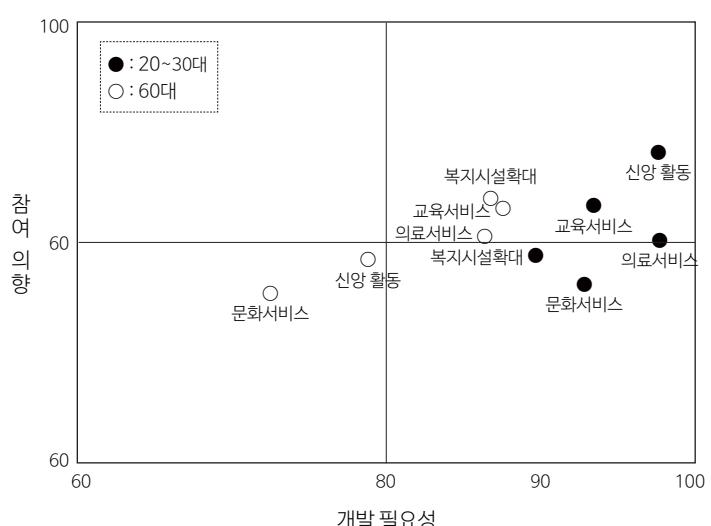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차이를 보기 위해 20~30대(177명)와 60대(288명)를 대상으로 1)교육 서비스 2)의료 서비스 3)문화 서비스 4)신앙 활동 5)복지시설 확대 등의 5개 분야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과 참여의향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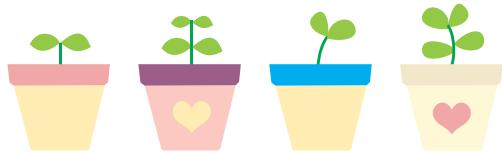
■ 20~30대와 60대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과 참여의향

영락교회 서비스 개발 필요성/참여의향	개발 필요성	참여의향
1. 교육적 서비스(건강,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92.1/88.2	83.1/82.6
2. 의료적 서비스(호스피스, 재활, 요양, 가정간호, 의료상담 등)	94.9/87.5	80.2/81.3
3. 문화적 서비스(생활상담, 문화생활 등)	91.0/75.3	77.4/71.5
4. 신앙 활동(주일예배 이동보조, 가정예배 등)	94.4/79.5	88.1/78.1
5. 복지시설 확대(노인복지선교센터, 실버타운, 요양원 시설 등)	90.4/88.2	78.0/83.0
평균	92.5/83.8	81.3/79.3

분야별 서비스 개발 필요성과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한 연령집단 별 차이에 관한 자료를 뽑아 재정리해 도표화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비스 개발 필요성과 참여의향을 물었을 때 20~30대가 60대보다 높았다.
- ② 20~30대에서 신앙 활동이 가장 우선이었고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였다.





- ③ 60대에서는 복지시설 확대와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돋보였다.
 - ④ 그러므로 20~30대는 신앙 활동, 60대는 복지시설 확대가 특별히 중요하고.
-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는 두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시되었다.

젊은이들의 선교 열정을 지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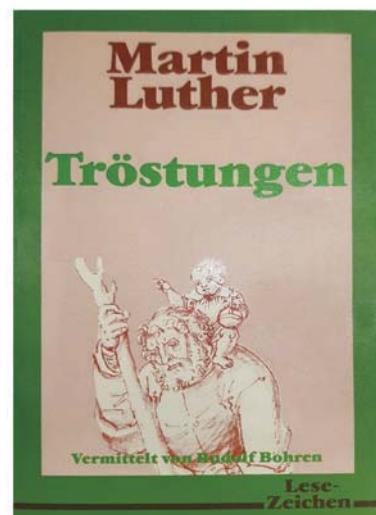
20~30대에서 신앙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즉 젊은이들이 신앙 생활에 소극적이고 선교에도 무관심하리라는 상식을 뒤엎는 결과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적극적이며 특히 신앙생활 즉 선교에 진취성을 갖고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 즉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와서 문제라는 시각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진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진 선교의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구조를 개혁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20~30대가 자신의 선교의 뜻을 폄기 위해서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60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젊은이들 스스로 지금까지 가졌던 기성세대에 대한 견해를 뒤돌아보고, 기성세대에게 적극 물어보는 자세를 가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 둘의 관계를 신학자 바렌이 편집한 마틴 루터의 ‘위로’라는 책의 표지로 설명하고 싶다. 원래 이 그림은 교부 위에서만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그림이다. 어른들은 젊은이를 어깨 위에 오르게 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더 멀리 보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상호 협동적인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락교회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평신도 선교운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교회 성장은 물론 민족복음화와 한국 교회의 대 부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남**



당뇨병, 왜 위험하며 어떻게 치료하는가?

당뇨병은 위험한 병인가?

당뇨병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마주치는 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12%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추정되는데, 이는 30~40년 전에 인구의 1~2% 정도가 당뇨병 환자였다고 추정되던 것에 비해 약 10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건강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환자들이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잘 찾지 않았고, 국가적인 검진 사업도 없어 진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영양의 과잉 공급과 활동량 감소로 인한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당뇨병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원인 2위 심장질환과 3위 뇌혈관질환이 당뇨병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상당수 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에 직접, 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인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당뇨병 환자가 많고, 또 당뇨병이 사망 원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이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 괴로운 것이 없다 보니 치료에 소홀하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혈당이 좀 높더라도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당뇨병의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데, 식이요법을 해라, 운동을 해라, 심지어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이를 따라 철



박도준 안수집사
서초교구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저하게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초기부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병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 합병증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망막증 등

수많은 합병증 불러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약제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힘들었던 과거에는 당뇨병성케톤산증, 고삼투압성 고혈당흔수 등 환자가 의식을 잃고,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합병증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적어져서 간간이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당뇨병성 망막증(눈 질환), 당뇨병의 신경합병증, 당뇨병성 신증(콩팥병), 당뇨병성 말초혈관질환 등이 대표적인 만성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겨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 심혈관 질환 발생은 일반인에 비해 3~4배 많으며, 당뇨병 환자의 70% 정도는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또한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하며, 이 또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팔다리의 마비나 사망으로 진행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또 다른 큰 문제는 당뇨병성 망막

증에 의한 시력 상실입니다. 현재 성인에서 실명을 초래하는 원인 1위는 당뇨병인데, 이는 당뇨병 환자의 망막에 출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뇨병성 망막증이 발생해 출혈이 생기면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 실명이 되지 않더라도 시력이 0.1~0.3 정도로밖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책을 읽는다거나 TV 시청도 거의 불가능해지고, 외출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의 신경합병증은 주로 심한 통증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손발의 통증, 특히 발의 통증으로 오게 되는데, 그 심한 정도가 일반 진통제로는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혹은 정신과적인 약을 써야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잘 치료를 하면 좋아지기는 하는데, 혈당이 정상화된 후에도 몇 달 정도 통증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성 신증도 매우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면 일주일에 3~4회,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데,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의 1/3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또 혈액투석을 새로 시작하는 환자의 약 1/2은 당뇨병에 의해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입니다. 혈액투석을 새로 시작하는 환자의 1/2이 당뇨병 환자인데, 혈액투석을 계속하고 있는 환자의 1/3이 당뇨병 환자라는 뜻은 당뇨병 환자가 다른 원인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에 비해 일찍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당뇨병에 의한 신장기능 악화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당뇨병성 말초혈관질환은 당뇨병 때문에 팔다리의 혈관이 막혀 특히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팔다리 절단 수



술을 해야 하는데 성인에서 팔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는 원인으로 당뇨병은 1위인 교통사고 바로 다음인 2위입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각종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합병증들이 일단 증상이 생겼다 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도 처음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없고 점점 진행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 단계에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일단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관리를 잘 하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뇨약 잘 복용하면 건강하게 천수

이전에는 당뇨병의 치료제가 먹는 약도 몇 가지 안 되었고, 인슐린 주사도 하루에 여러 번 맞아야 했습니다. 또 약을 잘못 쓰면 심한 저혈당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발전에 따라 부작용이 매우 적은 당뇨병 치료제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했던 환자들의 상당수가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며, 주사 치료 제도 인슐린 말고도 저혈당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주사제들이 발명되어 고생하지 않고 당뇨병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조절도 해야 하고 운동도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만 이전보다는 덜 열심히 식사조절과 운동을 해도 새로운 약제들에 의해 훨씬 더 조절이 잘 되어 이전보다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가끔 환자들 중에 한번 약을 사용하면 평생 써야 하기 때문에 약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분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를 평생을 하는데, 약 먹는 것은 하루 한 번이나 두 번만, 그것도 10초도 안 걸리는데, 약을 먹지 않고 병을 악화 시켜 더 큰 고생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은 부작용도 거의 없으면서 이전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 내 몸에 맞는 약을 잘 선택하면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내 몸을 잘 관리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데 쓰이도록 하는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의무일 것입니다. **만남**

십자가 앞의 변명 그리고 변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공회의원.

부끄럽게도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성 금요일이니 으레 그래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공연이나 영상을 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 기라니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연은 제목에 충실히 아리마대 요셉의 시점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요셉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함께 고민하며 그를 대신해 변명을 하고 있더군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으면 쉽게 결정할 수 없지, 그만큼 반대했으면 됐어, 어차피 혼자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얄팍한 자기합리화가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큰 소리와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자 그제야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물밀듯 밀려오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숨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때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변명이 앞서곤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순간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공연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했습니다. 고난주간마다 눈물로 기도하고는 곧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달리, 요셉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당당히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닦아드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물 흐르듯 부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나갔을 성 금요일, 자극히 인간적인 고민으로 십자가의 날을



조한아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사진 이영주 집사(영락포토)

맞이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한 명의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요셉과 함께 고민하고, 후회하고, 변화를 결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뮤지컬을 관람한 후 예수 역할을 맡았던 최중열 배우와 이 작품을 기획한 김태영 차장 집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극 중의 다른 누군가가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일을 한다”고 본인을 소개한 최중열 배우는 이번 ‘아리마대 요셉’에서 맡은 예수님 역은 참 값진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든 연기하는 인물의 인생을 상상하며 그 사람이 되어보려 노력하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인간 예수’를 만나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공관복음을 다 읽기도 전에 느낄 수 있어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너무 모르기에 말씀을 더 보게 됐고, 그 덕분에 사순절을 예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대면하며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최 배우를 통해 무대 위 배우들에게도 이 뮤지컬이 커다란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

습니다. 최 배우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고, 성전을 뒤엎으며 함께 분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일각이라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위트니스를 비롯해 공연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 밤새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김태영 차장 집사는 지난 1월부터 이 공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습하는 동안 하나님으로 연합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지며 상처와 절망 속에 헤매는 세상에서 기독교문화예술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뮤지컬은 끝났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위기의 순간에 결단함으로 믿음과 담대함이 더욱 강해진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요셉과 같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내가 아는 모든 이야기는 모두 부직포 칠판에서 배웠다”고 저자 레너드 스윗이 말했듯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태블릿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존재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란 예수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일 게다. 이 글을 보고 2가지 점을 곰곰이 생각했다.

인간은 인생에서 참고 기다리는 점을 스스로 깨우친다는 것이다. 밥은 뜸이 잘 들어야 제 맛이 나듯이 세상사 모든 가치는 기다리고 참을 때 참 가치가 나타난다.

흔히 아이를 기르거나 이성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묻고 따질 것 없이 옥시토신은 생체, 다시 말해서 포유류(인간)만 가질 수 있는 호르몬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은 없다. 모두 취향의 문

제일 것이다. 다만 관계는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의 다른 취향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의 정체성의 본성은 식탁훈련과 교육(가르침)을 통해서 배양된다. 저자가 말하는 식탁은 그것을 배우는 장소일 것이다.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 잊혀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고스란히 남아 있음은 왜일까? 세상사는 서서히 획일적, 개인적, 이기적이게 되어가고 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식탁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아주 천천히 형성된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더욱 느리게 변화된다. 이렇게 느리고 서서히 변화되는 이유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그리고 역사와 문화, 철학, 사회 현상에 담긴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 상투적 종교 용어가 되어버린 ‘관계’와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고 많은 것이 변화되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현대 교회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이며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규모가 큰 것만이 좋은 교회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그 결과 ‘식탁의 자리’를 잊고 말았다. 풍성하고 넉넉할 식탁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와 교회와 가정은 심각할 정도로 빈약하고 초라해졌다. 그만큼 ‘밥상머리 이야기’ 즉, ‘식탁 대화’는 고귀하고 독특한 것이리라. 나는 여기서 ‘개인주의, 인스턴트식 사고방식, 찰나적 만족’을 존재



이영철 집사
강북·도봉교구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자라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식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이 탄생한 자리이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재생되고 기억되고 경험되는 장소이다.

- 「태블릿에서 테이블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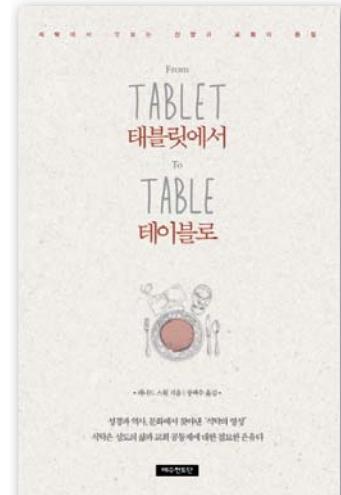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도 되는가에 심각한 질문을 던져 본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나에게 깊은 생각과 성찰을 요구했다. 차분히 있을 시간이 인간에게 필요한가? 여기에 작용 반작용의 진리가 숨어 있다. 창의적 변화는 고요함과 침묵이 필요하다. 무언가가 나오려면 아무것도 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다림과 참음의 미학이 있는 것이다.

경험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든다. 떠벌리고 자랑함과 잠자코 들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한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 속담에 “나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화도 중요하지만 ‘식탁에서의 침묵’은 폭력적인 입막음이 아니라 ‘진리의 침묵’이다.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가?

인간의 창조와 본성을 좌우하는 성경이 몇 권, 몇 절,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질과 무관하다. 우리네 할머니의 옛날이야기처럼 성경은 내러티브와 비유로 쓰인 이야기이자 시이며, 노래이고 편지이며 회고록이고 자서전이며 꿈 이야기이다.

그렇기에 우리 가슴에 이토록 오래 남아 있는 진리인 것이다. 저자는 비록 ‘태블릿에서 테이블로’라는 메타포로 표현하였지만 이제는 정말 테이블로 가야만 한다. 그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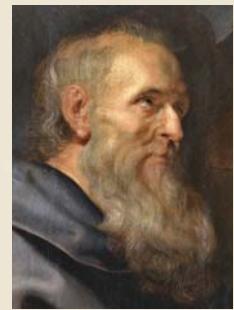
레너드 스윗 저, 장택수 역(예수전도단, 2015)

힘든 것이다. ‘대화’와 ‘관계 형성’의 변화가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우리의 모든 과정, 결과, 결정, 변화도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젊어들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라. 후일담이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집에 오라. 와서 식탁에 앉아 같이 먹자.” **만남**

한 권의 묵상 코너는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신앙서적을 통한 크리스천 지성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원고 투고 방법 youngnak-hb@daum.net

빌립,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한 사람



사도 빌립에 대한 서술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요한복음에 담겨 있다.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요 1:44)에 살던 사람이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이름인데,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 절기에 참여하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먼저 빌립을 찾아갔다(요 12:20~21)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그리스어를 알았으며, 그리스 사람들과 연고가 있었던 것 같다.

빌립은 예수를 처음 만난 뒤 그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요 1:45)라는 확신을 가졌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신 18:15)라고 일컬은 사람, 즉 메시아적 인물을 말한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도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다. 이로 보아, 그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가 그런 이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사렛에서” 그런 이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와서 보라!”(요 1:46) 이 확신에 찬 말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께로 나아갔다.

이처럼 예수와 함께한 빌립의 삶은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삶에는 신앙이 시험대에 놓인 두 번의 중대한 순간이 있었다.

우선,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빌립을 “시험[해]”(요 6:6) 보셨다. 빌립은 평소에 하듯이 사람들 수와 동원 가능한 재정을 파악하고서 200데나리온(근로자

200일의 임금)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직후 안드레가 소개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양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의 한가운데에 놓인 궁핍과 굶주림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다음, 십자가 사건 직전의 한 주간 동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냈을 때, 빌립은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예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청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는 뜻밖의 답을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겪은 모든 것의 요약이나 다름없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예수의 열한 제자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통과해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남은 사람들이다. 그중 빌립의 이름이 소중한 것은, 빌립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을 통해 예수께 다가갔다가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나오는 빌립 집사 또는 전도자 빌립과 사도 빌립은 다른 사람이니 이들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만남**

MOVIE

6월의 상영작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80일간의 세계 일주

(Around the World in 80 Days, 1956)

(상) 2일
(하) 9일



감독 :マイ클 앤더슨 주연 :데이빗 니븐, 캔틴플라스, 로버트 뉴턴, 셜리 맥클레인
상영시간 : 2시간 55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기, 모험을 즐기며 꼼꼼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의 거부 필리스 포그는 클럽 친구들과 80일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느냐는 논쟁 끝에 전 재산을 걸고 내기한다. 그는 충실했던 집사 빠스빠르두와 함께 곧바로 세계일주 여행을 떠난다. 유여곡절을 겪으며 세계 일주에 성공하지만, 기한보다 하루를 넘긴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의 시차로 인한 착오였음이 밝혀지고 결국 내기에서 이긴다.



16일

코러스 (The Chorus, Les Choristes, 2004)

감독 : 크리스토프 바라티에

주연 : 제라르 쥐노, 장 밥티스트 모니에, 막상스 페렝, 프랑수아 베를레앙, 카드 므라
상영시간 : 1시간 37분 등급 : 전체관람가

실패한 작곡가와 꿈을 잃은 아이들. 이제 그들의 희망 합창곡이 울려 퍼진다!

성대한 클래식 공연장. 수천의 청중을 사로잡는 교향악단의 지휘자 모항주에게 옛 친구 페피노가 찾아온다. 오래된 낡은 일기장을 들고서. 모항주와 페피노는 60여 년 전 여름, 한 대머리 선생과의 만남을 떠올린다.



크로싱 (Crossing, 2008)

23일



감독 : 김태균 주연 : 차인표, 신명철, 주다영, 서영화
상영시간 : 1시간 45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2007년, 함경도 탄광마을의 아버지 용수, 어머니 용화 그리고 열한 살 아들 준이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함께 있어 행복하다. 어느 날, 엄마가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간단한 감기약조차 구할 수 없는 북한

형편에, 용수는 중국행을 결심한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 끝에 중국에 도착하여 벌목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지만, 불법 현장이 발각되면서 모든 돈을 잃고 경찰에 쫓기게 된다. 어느 날, 간단한 인터뷰만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다. 그것이 가족과 완전히 헤어지는 길이 될 줄은 모른 채…



30일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2014)

감독 : 권혁만 장르 : 다큐멘터리

상영시간 : 1시간 22분 등급 : 전체관람가

비극적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며 자신과 함께 한 한센 환자들을 두고 피난할 수 없다며 애양원을 지키다 안타까운 죽음으로 짧은 생을 살았던 손양원. 오늘날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한 그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자'라고 부르며, 손양원이란 이름을 저 높은 곳에 올려두었다. 이 영화는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평범한 인간의 아버지를 그려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격과 기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면에 감추어진 그만의 깊숙한 내면을 탐색해 간다. 손양원의 용서와 사랑은 처음부터 성자의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보통 인간이 겪었을 온갖 비통을 이겨낸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 아닐까.



전 세대가 함께 드린 가족주일 예배

- 가족주일 마당행사 ‘이음(異音) 광장’도 열려



지난 5월 12일 가족주일을 맞아 이날 주일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2부(사랑부/중·고등부), 3부(영아·유아·유치부), 4부(유년·초등·소년부) 예배는 교회학교에 속한 많은 믿음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온 가정이 예수 생명으로 이어지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소중한 영적 회합의 시간이됐다.

이날 예배에서 사무엘하 1:17~27을 본문으로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제하의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의 삶을 본받아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떠나지 않으며, ‘영락’이라는 이름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락의 가정이 되길 기원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2~4부 예배 시간에는 설교 직전 순서로 단막극 ‘대화가 필요해’ 공연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베다니광장에서는 가족주일을 기념하는 마당행사로 ‘이음(異音: 서로의 소리를 듣다)’ 광장행사가 열려, 많은 영락의 가정들이 ‘우리 집 가훈쓰기(캘리그라피)’, ‘믿음의 가정 꽃동산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자녀들과 함께하며 믿음의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이미혜 선임기자, 원종석 기자

어버이를 위한 감사음악회



가정의 달과 어버이주일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음악회가 5월 11일(토)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호산나찬양대와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어버이를 위한’이라는 타이틀 아래 영락 공동체 전 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게 꾸며졌다.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필두로 호산나찬양대와 남성합창단 조이풀시너즈의 연주가 이어졌다.

으며, 특별순서로 진행된 ‘어버이께 바치는 글’ 순서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장의준 군(13), 임서빈 양(13), 호산나찬양대원 이현지 성도(25)가 직접 작성한 편지글을 낭독하며 부모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전달했다.

호산나찬양대와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음악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주일을 기념했다. 호산나찬양대 김원태 총무는 “청소년오케스트라부터 호산나찬양대, 조이풀시너즈까지 전세대가 함께한 음악회여서 더욱 뜻 깊은 경험이었다”며 이번 음악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취재 이현지 기자

영·육·대! (영과 육이 하나 되는 대학부)

대학부(부장 장병건 장로)는 지난 5월 5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대광고등학교에서 ‘2019 영·육·대’ 행사를 진행했다. ‘영·육·대’란 ‘영과 육이 하나 되는 대학부’의 줄임말로 매년 5월 개최하는 대학부 체육대회를 가리킨다. 백성우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지도위원, 150여 명의 대학부 벗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19 영·육·대’는 대학부 학생회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CCM 찬양을 이용한 열띤 응원의 함성들로 채워졌다. 특히 학업과 취업의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동적인 체육활동을 마음껏 즐긴 이번 행사는 대학부 구성원들에게 영과 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제공 정찬우 학생(대학부 45기)

박광준 장로, 숭실대 이사장 취임



박광준 은퇴장로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제2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지난 4월 30일(화) 오후 6시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김덕운예배실에서 박광준 이사장 취임예배를 드렸다. 황준성 총장을 비롯한 교내 관계자와 김정서 목사(예장 통합 증경 총회장)를 포함한 교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예배에서 본 교회 이철신 원로목사가 마태복음

22:37~40의 말씀으로 '경천애인'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이철신 목사는 "숱한 역경 속에서도 경천애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봉사의 건학정신을 지키는 숭실을 볼 때 희망을 갖게 된다"며 "신임 이사장께서 숭실의 건학 이념을 더욱 분명히 세워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학 122주년을 맞이하는 숭실대의 '진리와 봉사' 건학정신을 이 시대에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소명감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 믿음과 열정의 인물 '갈렙'처럼 숭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제공 숭실대

동성애 반대를 위한 특별기도회

오는 6월 1일 개최되는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하기 위한 특별기도회가 지난 5월 1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한 특강을 겸해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장 길원평 교수(사진, 부산대 물리학과)는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차별금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분명한 죄악이니 교회가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기도회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윤리관을 갖도록, 아울러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제도적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다.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5월 한 달 동안 한국 교회 특별기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전국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퀴어축제와 같은 날인 6월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인 '러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성숙한 신앙으로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권사’, 권사회 수련회 열려



권사회(회장 흥용희 권사)는 지난 5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500여 명의 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사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예배로 드려진 1부 순서에서는 흥용희 권사의 인도로 부회장 오정선 권사의 기도와 권사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은성 목사(산들교회 담임)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엡 3:7~9)’이라 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과 더불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 귀한 모습의 권사님들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강으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권남궤 전도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가 강사로 나서 ‘영을 분별하라(요일 4:1)’라는 제목의 이단 관련 특강을 펼쳤다. 권 전도사는 이날 특강에서 수년간 신천지의 유혹에 빠졌다가 뒤늦게 사 이비 집단임을 깨닫고 탈퇴한 후,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선교현장에서 이단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는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하며 사이비 이단의 조직적 포교활동이 만연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함으로써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권면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기독대각성 운동을 위한 ‘기독학교 스페셜’

기독대각성 운동을 위한 ‘기독학교 스페셜’이 영락기도대 주관으로 2월 2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낮반(오후 1시 30분, 2/27(수) 권혁일 목사, 4/24(수) 김운성 목사)과 저녁반(오후 7시, 3/19(화) 박동진 목사, 5/7(화) 김응신 목사)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기독학교 스페셜’은 성경 속 인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장이 됐다. 지난 4월 24일(화) 오후 7시 드림홀에서 열린 저녁반 강의에 강사로 나선 김운성 목사는 예수님이 기도생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 초기 금식기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었으며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하셨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회 강사로 나선 본 교회 교역자들은 사도들의 기도, 구약 속의 위대한 기도, 모세의 기도 등의 주제를 통해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전통과 영성을 자세히 설명하며 기도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을 강의 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예비맘을 위한 조이스쿨, 10기 수료식



유니게학교 I 단계 과정인 ‘조이스쿨’ 10기 수료식이 지난 4월 27일(토) 봉사관 404호에서 열렸다. 임신한 예비맘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엄마 됨을 수용하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영적, 육체적, 심리적 영역에서 신앙으로 준비하는 과정인 조이스쿨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됨의 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의 부모와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첫 발판을 형성하도록 돋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제10기 조이스쿨 과정은 4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신체의 기쁨’, ‘마음의 기쁨’, ‘가족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진행돼 태교 찬양과 태교 성경 이야기, 태아를 위한 축복기도 시간을 통해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 분야별 전문 강사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해 부모됨의 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1기 조이스쿨 과정은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재 정다은 기자 사진제공 서예림 전도사

제47기 유니게학교, 유아 발레 수업 개설

지난 3월 9일(토) 시작된 제47기 유니게학교(담당 서루디아 전도사)가 2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유니게학교는 유아 발레 수업을 개설하여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며 유연성과 신체 활동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레 시간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하며 스트레칭과 기본적인 발레 동작들을 열심히 익히고 있다. 유아 발레를 통해서 아이들은



유니게학교에 더욱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니게학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신앙 성장 프로그램이다. 토요일 오전 10시, 50주년기념관 2층 유치부실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성경적으로 구성된 유니게 교재를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니게학교를 통해 유아기 자녀들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사랑하며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제47기 유니게학교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취재 강은진 기자 사진제공 서예림 전도사

황재영·김종훈 전도사, 목사 안수

4월 25일(목) 신일교회(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열린 제196회 서울노회에서 황재영(영락기도원), 김종훈(제2하나원)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사진 속 김운성 목사 좌측이 황재영 목사, 우측이 김종훈 목사.



「만남」제작에 봉사할 전문편집위원 모집

- ① 내용: 매달 발간하는 우리 교회 「만남」기획·취재·편집·제작 실무
- ② 대상: 본 교회 교인으로 신문 방송 잡지 출판 등 미디어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
- ③ 지원방법: 홍보출판부(youngnak-hb@daum.net)로 간단한 자기소개서
(교회 홈페이지에 첨부양식 A4 1매 이내)를 보내주십시오.

※ 문의 ☎ 2280-0197~8



허 근 은퇴장로 별세



허 근 은퇴장로가 지난 4월 27일(토)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0년 서울에서 출생한 고인은 1988년 본 교회 제21회 시무장로로 장립돼 2000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면서 중등부장, 목양부장, 청년부장, 선교부장 등을 역임하며 헌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4월 29일(월)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의 집례 가운데 교회장으로 엄수됐으며, 같은 날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김응신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고인은 부인 김순희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2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4월 14일~5월 12일)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4월 14일	권정하	18	025	4월 21일	이은이	09	007
	황두주	08	029		최병훈	06	039
	홍종빈	08	029		정승용	09	007
	이미숙	07	007		박광순	12	042
	이미영	04	066		민웅기	09	022
	옥동식	04	055		이범석	08	018
	김동욱	03	030		김연지	07	000
	하희옥	11	050		조혜연	13	005
	윤민재	09	035		김미정	03	048
	양한슬	10	000		김현정	03	048
	강영민	02	051		임유재	04	005
	김한이	09	004		송은별	04	030
4월 16일	김도은	05	000		김민재	02	045
	김동윤	05	000		박유온	15	019
	인서현	17	050		지유하	04	067
	정희민	14	002		정이준	05	046
	정하윤	08	024	4월 23일	김한을	06	011
	정이준	10	070		김도환	01	005
	박현찬	16	064	4월 28일	이경숙	08	006
4월 19일	박소은	06	060		김윤자	08	075
	구예음	07	048		우인영	09	063
4월 21일	오경자	04	025		유인숙	03	025
	임재영	05	010		김동귀	07	031
	임규열	08	010		노가희	04	054
	박기영	12	054		박건호	04	054
	조영애	07	000		이준	03	011
	김미라	03	048		전호준	09	045
	유태현	14	000		신아윤	09	052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기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4월 28일	최윤호	16	003	5월 5일	이도례	10	000
5월 3일	이사랑	04	098		양삼열	17	000
5월 5일	정규용	08	000		조대희	10	000
	김정자	08	000		박예리	10	000
	박정희	06	060		김루한	03	011
	고성순	05	000		이하영	04	027
	정다선	08	000		빙서윤	07	019
	김희성	17	000		빙서은	07	019
	성재규	07	018		박주한	17	053
	허정기	10	000				

유아세례

유아세례일(5월 5일)

이름	교구	구역	이름	교구	구역	이름	교구	구역
진서인	05	007	장채아	17	053	김도은	05	030
송하늘	14	018	백제이	13	028	김동윤	05	030
김주은	15	027	신채은	07	061	박소은	06	060
김주언	08	002	이산	13	033	박현찬	16	064
이주원	14	039	백강민	05	058	정이준	10	070
정혜린	16	034	최경준	16	008	정희민	14	002
김지원	16	016	이지후	09	011	인서현	17	050
정시엘	02	055	홍석현	13	015	구예음	07	048
이예은	04	098	김예진	13	041	지유하	04	067
노주은	04	098	김다온	05	001	송은별	04	030
윤중운	10	011	구하준	03	048	김민재	02	045
김주원	16	057	김하경	04	067	김한을	06	011
김리아	16	050	김이안	02	038	김도환	01	005

영락역사자료

2~4월 기증 사료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김종태 장로 (강남교구)	2/10	- 1983년 영락교회 35년사 외 영락교회 관련 단행본 1건
이강순 은퇴권사 (강남교구)	2/17	- 1985년~1991년 만남의길 10건
김수희 권사 (강남교구)	2/17 2/28	- 1998년~2007년 문화선교부 편찬 가요 뮤직비디오 보고서 21건 - 2003년 우리들의 문화 이야기 외 문화선교부 편찬 간행물 2건
오계환 장로 (고양·파주 교구)	3/3	- 한경직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필통 1건 - 1993년~1995년 임영수 목사 특별새벽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12건
신영순 은퇴권사 (강동·송파 교구)	3/10	- 1998년 합실생활 1건
장경미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3/13 3/22	- 2008년~2016년 IWE(국제예배) 예배 순서지 57건 - IWE 행사 관련 팸플릿 및 홍보지 8건 - 1996년 2월 18일 영락 대학부 주보 1건
무명	3/22	- 교회창립 50주년 및 광복 50주년 기념 서진 1건
박재훈 목사 (캐나다 거주)	4/7	- 1955년 영락교회 창립 10주년기념 순서지 외 문서류 2건
허명욱 권사 (안양·수원 교구)	4/7 4/14	- 2012년~2014년 북한 선교 학교 관련 인화사진 3건 - 2008년 9월 북한선교 연합회 소식지 외 도서간행물류 6건 - 2008년 하나님 기초생필품 전달예배 순서지 외 문서류 4건 - 2008년 6월 20일 북한선교 연합기도대회 초대장 외 박물류 1건 - 2005년 산상기도회 CD 외 시청각류 22건
최진영 은퇴권사 (성동·광진 교구)	4/14	- 국제전도폭발한국본부 관련 일반음성테이프 1건
김기환 은퇴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4/21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개정 2판 외 도서간행물류 2건
무명	4/28	- 제196회 서울노회 회의안 1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역사자료실 ☎ 02)2280-0357

1. 2000년대 이후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순서지
2.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상 사료(외부인사 서신 포함) - 외부기관 수여 감사패
3. 교회를 상징하는 주요 기념품 - 교회 깃발 및 로고, 교회의 머릿돌
4.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5. 만남의길 누락본(100,116,117,119,120,122,181,257,402,490,666,721번)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봉사하신 은퇴제직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 **가입 자격** : 2018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에 한해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 **가입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주일)로 마감합니다.
 -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 (은퇴제직상조회)
 - ▣ **가입 절차** : 수납창구에 비치된 가입원서를 수령해 본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참고사항

1. 회원자격 : <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혼신·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 (협동 포함) 안수집사 권사님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2. 회비 납부의무 :〈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 가입비: 10만원(1회만 납부)
 - * 연회비: 신규가입 시 2만원 그 후 매년 1만원
 - * 부조금: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원

3. 수혜사항 : <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 부의금: 6,000,000원 지급(의무이행 시 최대 6백만원 일시지급)
 - * 만 88세 이상 정회원은 부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6시까지 ☎ 2280~0238〉

2019년 6월



편집장 레터



에드워드 포인터 作 충성 (Faithful unto Death)
영국 리버풀 워커미술관 소장 1865.

6월이 되면 무엇보다 순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에 송고함을 더욱 느낀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 통일의 간구와 희망을 가지게 된 것도 역시 그 분들의 충성스러운 희생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 잉글랜드 리버풀에 있는 워커 미술관에는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사람이 그린 '충성 (Faithful unto Death)'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다. 그 옛날 로마의 품페이 도시가 베수비아스 화산폭발에 의해서 전멸당한 비참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의 폐허 광경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다. 화산재와 불꽃이 마치 소나기와 진눈깨비처럼 품페이 성 안에 온통 쏟아져 내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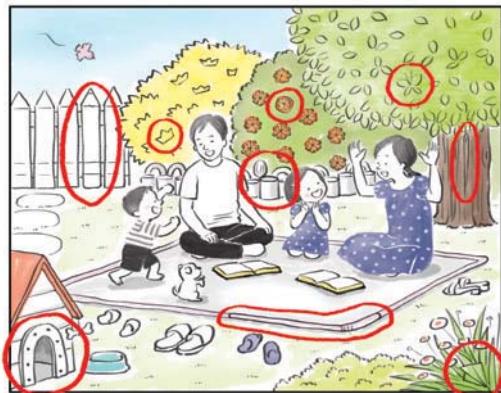
가운데 성문을 끗고 있는 병사 한 사람이 서 있다. 성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아우성치며 도망가고 있지만, 그 군인은 까닭하지 않고 자기 창을 그냥 짚고 서서 죽음을 기다리는 충성심을 보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적당히 한다는 자세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의 꿈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충성의 의미는 왕에게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충절을 지킨다는 뜻이 있지만, 본래 충성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기독인의 충성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헛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통일은 이념통일을 능가한다.

- 편집장 이동훈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월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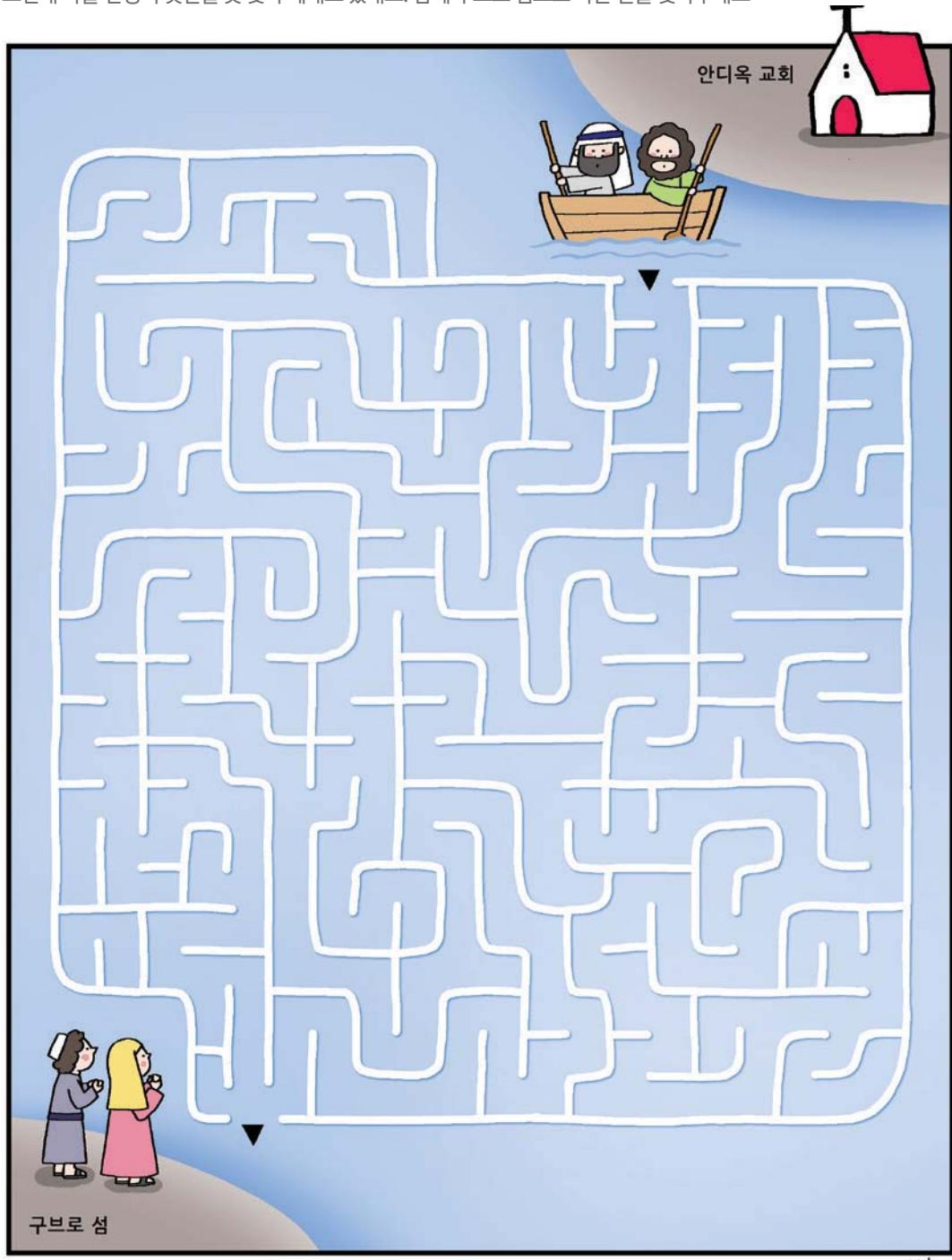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미로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바울 선생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떠나 구브로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사도행전 13)

그런데 바울 선생이 뱃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네요.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는 길을 찾아주세요~~^~



목회력

6月

1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2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7일(금)	연합권찰공부
9일(주일)	성령강림주일, 제직회
19일(수)~23일(주일)	북한선교대회
21일(금)	심방준비회
23일(주일)	사회봉사주일, 북한선교주일
24일(월)~29일(토)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28일(금)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종강

토요음악회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선교관

6/1	멜로스 클라리넷 양상블 정기연주회
6/8	시온찬양대 솔리스트 음악회
6/15	베다니찬양대 토요음악회
6/29	이엘합창단 2019 정기연주회
7/6	CTS 장로 챔버콰이어 정기연주회



토요음악회는 크리스천 음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연주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두 번째 주부터 8월 말까지는 공연 일정이 없습니다.

제공 음악부

2019 북한선교대회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소서

누가복음 4:18-19

※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의 산과 강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일정

5/12/19일(수)	수요 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본당
9일(주일)	오후 1시	영락포럼(이춘근 박사)	기념관503호
15일(토)	오전 9시	송악기도처 기도회	송악기도처
21일(금)	오후 4시 20분 오후 8시	영화상영(플란드로 간 아이들) 특별금요기도회(김운성 위임목사)	소강당 본당
23일(주일)	1-5부 오후 5시 종일	북한선교주일 예배(공동기도문) 북한선교주일 찬양예배(임철빈 목사) 장마당 체험전	본당 및 부속실 본당 베다니광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루벤스(Peter Paul Rubens)

107cm×82.5cm,

1611년 경

성 빌립

St. Philip

루벤스(Peter Paul Rubens)는 바로크 시대 플란더스(지금 벨기에 북부)의 대표적인 화가다. 그는 주로 성서를 바탕으로 한 제단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한 그림 및 초상화를 그렸는데, 탁월한 묘사력 때문에 유럽 전체에 걸쳐 큰 명성을 얻었다.

1612년 전후로 루벤스는 스페인의 레르마 공작의 요청에 의해 사도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 중 『성 빌립』은 빌립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것은 빌립이 그리스와 아나톨리아(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한 뒤 아나톨리아의 한 도시에서 순교했다는 전설에 근거한다. 이 전설의 진위야 어쨌든, 주저 없이 십자가를 붙든 손과 하늘을 향한 뚜렷한 시선은 믿음으로 확고해진 그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